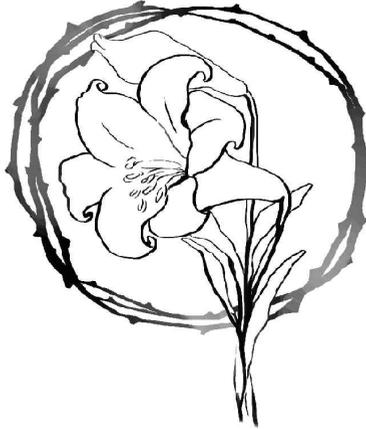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승천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중반에 이르러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하는 농부들처럼, 지나온 날을 감사히 돌아보고 새로운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주님의 법칙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헝가리 유람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큰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해 주시고, 실종자를 하루속히 찾게 도와주십시오. 책임을 맡은 한 사람의 부주의가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요일 1:7 인도자
 - ▲ 교 독 문 74. 마태복음 5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286.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 함께
 - ▲ 성경봉독 엡 4:7-10
 - I. 인도자
 - II. 최영민 집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찬 양
 - I. 계시는 주
 - II.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 I. 마중물 찬양대
 - II. 청파찬양대

말씀 만물을 충만케 하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채워 주신 것을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결핍감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오로지 나의 뜻과 나의 욕망만을 앞세우던 삶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다른 이의 삶 또한 충만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 믿음으로 읽는 글 ■

마을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 왜 한국에서 유례없는 혼인 기피와 저출산 현상이 야기되는지, 왜 혼자는 외롭고 같이하면 괴로운지를 전무가 및 언론에서도 제기한 적 없는 새로운 관점에서 원인을 짚어보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가족과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리 세대의 트라우마를 직시하면서 치유할 대안이 무엇인지, 과연 나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할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통찰은 나름의 오랜 고민과 연구도 있었지만, 국내외 마을공동체들을 샅샅이 훑으며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의 진솔한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인터뷰와 만남이 더해갈수록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선명해졌다. 그들은 혼자만 잘살아 보겠다는 이기적 욕망의 동굴에서 나와 사람들과 함께했다. 아니다. 역으로 함께 사는 게 행복하기에 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고, 상처의 동굴에서 쉽게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자체가 주는 치유와 자족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 …

마을공동체살이는 장소만을 뜻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다. 마을공동체살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남한테 자신의 잘난 점을 과시하고, 남의 약점을 발견해 짓밟으면서 상대를 이겨 출세하려는 식의 자본주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보는 것이다. 죽도록 달리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하며 미래의 보함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박하게 이웃과 서로 돌보며 친밀해짐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혼살은 쉽게 택하지만, 마을 혹은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두려워한다. 둘이만 사는 것도, 가족끼리만 사는 것도 피곤한데, 아니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데, 그렇게 많은 타인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초고속성장 시대에 부모를 일터에 빼앗긴 단절의 트라우마가 있고, 경쟁의 부추김 속에서 피로에 지쳐 있는데다 직장 상

사, 동료나 친구들에게까지 상처 받아 인간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한국인이
라면 더욱 그렇다. …

우리의 10~20년 뒤 모습을 앞서 보여주는 일본에서 감옥으로 가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수하기에 할머니가 많다. 일본 법무
성 <범죄 백서>에 따르면 전체 여성 수감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01년 10퍼센트에서 2016년에는 34퍼센트로 세 배 이상 늘었다. 90퍼센트
이상이 동네 마트에서 음료수나 과자를 훔치다 걸린 단순 절도다. 일본에서
는 200엔짜리 물건만 훔쳐도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악용한 것이다.
외로움과 가난, 가족 불화, 질병으로 힘든 노인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삼시 세끼도 챙겨주고, 돌봄까지 받을 수 있는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 고
독한 혼삶보다는 감옥이라도 공동체가 낫다는 것이다. …

마을공동체는 주거, 비혼, 출산, 육아, 교육 등 우리 사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와 직결돼 있다. 간디는 평생 마을공동체에서만 살았다. 인도의 독립보
다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디는
'마을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다. …

두렵고 험난한 세상의 모든 파고를 홀로 넘어야 하는 것만큼 큰 재난은
없다. 개인을 옥죄는 게 자본만은 아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럴 때
하소연하고, 도움받을 사람 한 명 없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겠는가. 힘든 일
이 있을 때 함께 걱정하고 내 일처럼 나서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즉 힘겨
운 세상에서 내 편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천국이고 극락이 아니겠는가.

진짜 재난은 쓰나미나 지진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혼자 죽어갈 때조차
모든 고통을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목숨을 다하는 순간 누군가
곁에 있고, 함께 아파하는 이가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한 아픔과 상처를 겪었기에 마음이 머나먼 은하계를 외롭
게 떠도는 사람들, 그대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그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로 돌아올 용기를 내기를 빈다.

씨앗론

- 이승희

꽃이 피거나

열매 맺는 일이란 습성이나

본성이 아닌 거야

검은 흙 속을

아주 오래 무던히 걸어온 시간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다가

풀리는 일이야

감자꽃이 피는 것은

하얗게 피어 말하는 것은

땅속에 말 못할 그리움이

생겨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곽새롬	권미정	김경혜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명하
오형일	김명희 ^b	김미숙	김성아	김성우	박유경	김수진 ^b	김승현	김수진 ^a	김연정
김영옥	김영읍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은옥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량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규	이종옥	김정민	이혜령	김종성 ^b	서이순	김중수
이순정	김중현	성귀옥	김진우	임미진	김진혁	신다현	김진혁	신다현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형근	김혜라	김혜영	김호식	최원영	남명진	김애정	남윤경
노신후	노연정	마재국	손의나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노수	남인자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옥순	박재영	이현정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 ^a	방 민	방 준	배재경	이수정	백원선	성지현	손규현	오보영
신영신	안미순	안종일	정현주	안지민	안홍숙	홍순구	오유경	김현동	오재형
임고운	왕수명	우순덕	유수진	유중희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미정	이성범	권현숙	이시경	이완구	이왕준	송상경	이유진 ^a	이응석	이은경
이재우	배이화	이재훈	이종후	이한나	임당재	임성택	홍순위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장동훈	정은선	장병준	박소현	장현희	전병호	이은주	전현선
정연희	정원석	김현영	정재은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조호진	최승주
주은경	최미자	최소라	고인성	최승주	조호진	최옥분	최윤선	최윤화	최철수
곽권희	최형민	최희영	추현영	한선희	한양미	이진영 ^b	한완식	임정자	홍소형
홍순복	홍춘숙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혜린	구혜린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명희	김영호	김와니	권윤경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태정	나오미 ¹	여선교회	나오미 ²	여선교회	박지선	박호승	
배삼순	신기호	안현호	이고임	이범석	류정욱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소영
이승지	이인웅	이태석	임광호	임설희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승희	전근우
전현선	조미영	최혜정	한훈식	권채영	함정희	무명4			

생일감사헌금 송남필

녹색꿈헌금 남윤경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윤선호 이고임 이현죽 한양미 무명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침)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입니다.
 2. **떼제 기도회** : 6월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3. **환경지도자 교육** : 서울연회 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환경지도자 교육이 6월 7일부터 3주간 금요일 오전10:00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4. **수요저녁성경공부** : 6월 12일 저녁 7:30부터 이범석 목사가 <창세기>를 강의합니다.(6주간 수업) 수강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앙실천** :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 냉방을 과도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간편 차림(반팔)으로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 * 커피 대접 : 권혁순 박혜경 (어머님 배삼순 권사님 생신 축하)

다음 주 설교 본문 에스겔 47:7~9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조항범	소광섭	김재흥

6월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정연희	이현순 김해선
	2부 헌금위원	안홍숙 황현성		

오늘 식당 봉사	김금순 서수진 이정란 이애정 김향자 남명진 배기용 조성일
다음주식당봉사	이혜령 박소현 이미영 이희숙 임진엽 박기원 김정훈 장병준
오늘설거지봉사	2남선교회(51-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3남선교회(46-50세)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